

#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정부가 7월부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암검진은 현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종에 대해 검진대상자를 정해 주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암관리법을 개정해 폐암을 추가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만 54~74세 성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은 고

## 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진비용 11만원...90% 건강보험으로 지원

위험군이며 주기는 2년이다.

갑년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하루 2갑씩 15년간 매일 담배를 피웠다면 흡연력은 30갑년이 된다.

1인당 약 11만원인 폐암 검진 비용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10%인 1만 원가량이다. 나머지 90%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규

정과 관련 서식도 개정한다.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급여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 주어진다. 지정받으려면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추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암관리법 시행령은 13일부터, 건강검진기본법 시

행규칙 14일부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암으로 숨진 사람은 1만7969명으로 전체 암 가운데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율 확률(5년 상대생존율)은 26.7%로 주요 암종 중 두번째로 낮고(위장암 10.8%) 조기발견율은 20.7%로 대장암(37.7%), 유방암(57.7%), 위암(61.6%) 등보다 떨어졌다.

복지부는 폐암검진 추가가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아져 폐암 생존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폐암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됐다. 조기발견율은 68.6%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3배 수준을 보였다.

뉴스시

## 캐나다 한 해변서 ‘사람 발’ 15번째 발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해변에서 사람의 발이 15번이나 발견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해변에서 15번째 사람의 발이 발견된 사실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검찰 당국이 이날 대중의 제보를 공식 요청하면서 확인됐다.

작년 9월 발견된 15번째 사람의 발은 9.5 사이즈 남성용 회색 운동화 파란색 양말과 함께 발견됐다. 검사관은 뼈 구조 등을 분석해 이 발은 50대 보다 젊은 사람의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특정 해변에서 사람의 발만 15번 발견된 데 대해 언론들은 겨울철 브리티시컬럼비아에 큰 조류가 발생하는데, 이 파도때문에 사람의 뼈를 비롯한 온갖 것들이 해변으로 쓸려와 발견된다고 전했다.

수사 당국은 해변에서 발만 자주 발견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다물 속에서 산발 속 발은 시신의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더디게 부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 발의 신원은 모두 파악됐고, 이들은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검찰 당국은 “검시 결과, 이번에 발견된 발도 타살과 연관됐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 에티오피아 가수, 축하총포에 맞아 사망

에티오피아 가수 한 명이 호텔 개장식 행사 도중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발사한 총탄에 맞아 숨졌다.

12일(현지시간)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이슈페의 한 호텔 개장식에서 가수 다디 겔라이 축하 공연 도중 유탄에 맞았다고 그의 지인이 밝혔다.

목격자에 따르면 다디의 축하 공연 당시 한 곡당 50~60발의 축하 총알이 발사됐으며, 다디가 공연을 막 끝냈을 때 여러발의 축하 총포 가운데 한 발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동료인 우다조는 “다디가 총격에 맞고 쓰러지자 사람들은 현장에서 달아났다”며 “다디는 쓰러진 뒤 ‘조심해라 너도 총에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기념식과 추도식에서 공중에 총격을 가하는 것은 이 지역의 전통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디는 에티오피아내 최대 종족인 오로모 주민들을 옹호하는 정치적 노래로 유명한 가수였으며, 5권의 책을 발간한 저자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달 초에도 결혼식 축하행사 도중 신랑이 지닌 수류탄이 폭발하면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었다.

## 美 텍사스서 개우리에 갇힌 아이들 4명 발견

미국 텍사스 북부의 전원도시에서 12일(현지시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양실조상태의 굶주린 아이들 4명을 발견했으며 그 중 2명은 먹을 것이 잔뜩 쌓인 채 자물쇠로 잠겨있는 음식 창고 안의 강아지 용 쇠우리에 갇혀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포트워스 시 외곽 32km지점에 있는 와이즈 카운티 경찰 소속의 레인 애킨 보안관은 부부싸움이 벌어진 집에 출동했을 때 이 아이들이 발견된 곳은 집 옆의 창고 안이었으며, 바로 옆에는 많은 음식물들이 자물쇠에 잠긴 채 보관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델리스 모닝뉴스지에 따르면 발견된 아이들은 가장 큰 아이가 5살이었고 5세, 3세, 1세의 남아아이와 4살짜리 여자 아이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옷도 제대로 입혀지지 않은 채 똥오줌으로 더러운 상태였다.

아이들이 갇힌 개우리는 가로 세로가 90cm밖에 안돼 비좁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애킨 보안관은 “경찰관 생활 44년 동안 이런 최악의 아동학대는 처음 보았다”면서 “자녀들을 개우리에 가둔 것은 처음 보았고 정말 속이 뒤집히는 광경이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아이들은 모두 포트워스 시내 쿡 아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 대변인은 영양실조상태인 것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거부했다.

경찰은 집안에 있던 아이들 엄마와 그녀와 싸우고 있던 얼굴을 다친 남성을 아이들 4명에 대한 4건의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스시

## 개 물림사고 빈번... 하루 6건꼴 119 출동

119구급대가 하루 평균 6차례 개 물림사고로 출동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에 물렸다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 수는 2368명이었다. 하루에 6번꼴로 119가 현장에 나간 셈이다.

1년 전(2404명)보다는 1.4% 감소했지만 2016년(2111명) 이후 3년 연속 2000명이 넘는다.

최근 3년간 개에 물린 후 119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15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 1241명, 60대 962명, 70대 718명 순으로 젊은 층보다 사고가 더 빈번했다.

계절별로는 야외 활동이 많은 5~10월 월간 평균 226명으로 연간 평균치인 191명보다 18%(35명)가 더 많았다.

개 물림사고를 예방하려면 개 소유자의 허락없이 개를 만지거나 가까이 다가가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개가 공격할 때에는 가방 등으로 신체 접근을 막고 넘어진 경우 몸을 웅크린 뒤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 보호해야 한다.

개 소유자는 개와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써줘야 한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개에 물렸다면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준 뒤 응급처치 후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급 시 119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뉴스시



봄을 기다리며 13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에서 벼들강아지(갯버들)가 수줍은 속살을 드러내며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 ‘돈봉투에 전복·사과 선물까지’ 나주조합장 선거 혼탁 절정

경찰...돈봉투 전달한 출마예정자 불구속 입건 수사 확대  
선관위, 선물세트 전달한 출마예정자·현직 조합장 조사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나주에서 사전 혼탁 선거운동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돈 봉투를 전달한 한 출마예정자가 경찰 수사를 통해 불구속 입건되는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풀린 것으로 제보된 한 출마예정자와 현직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13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일 한 주민에게 30만원이 든 돈

봉투와 함께 특정지역 조합원 명단이 담긴 리스트를 전달한 출마예정자 A(64)씨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설을 앞두고 지역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출

마예정자 B씨와 현직 모 농협조합장 C씨를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제보내용에 따르면 출마예정자 B씨는 ‘전복 선물세트’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직 모 농협조합장 C씨는 조합원들에게 ‘사과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시선관위는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씨와 C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 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